



시민공론화위원회_숙의토론회

✓ **보도일시**

2021. 1. 26.(화) 조간용

<배포 후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>

위 원 장

이 양 재 (☎ 010-5029-5455)

간 사

이 정 현 (☎ 010-3689-4342)

시민의숲1963추진단장

김 문 기 (☎ 063-281-5033)

총 매 수

2매

사

진

유

☐ 무

☒

영

상

유

☐ 무

☒

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

시민 의견수렴 마무리.. 권고안 작성 돌입

- 23일 전일고에서 직접대면 및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개최
- 공론화위원회, 시민 의견수렴 결과 토대로 전주시에 제출할 권고안 작성 논의

- ‘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’(위원장 이양재)는 지난 23일 시민 의견수렴의 마지막 과정인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.
- 이로써 지난해 2월 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약 1년 만에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드러날 전망이다.
- 이날 숙의토론회는 작년 말 선정한 시민참여단 120명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찾고자 진행됐다.
- 전일고등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 120명 중 99명(82.5%)의 시민이 참여했으며, 10개조로 나뉘어 대면 토의가 진행됐다. 이와 함께 전체토의를 위해 온라인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토의를 병행 실시됐다.
- 시민참여단 2차 조사와 함께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오전에는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 및 공론화 의제 설명 이후 분임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. 오후에는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해 결정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과 장단점, 기대효과와 한계점 및 보완점 등을 놓고 분임토의와 질의응답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 토론회 이후에는 최종 3차 조사를 실시됐다.
-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권고(안)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늦어도 다음 달 말쯤에는 전주시에 최종 권고(안)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.
-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지리적으로 중요한

곳에 위치하고 있어, 이에 대한 활용 방향 설정이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공론화가 시작됐다.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였다.

- 지난해 2월 시의원, 시민단체, 언론인, 갈등 및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시민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,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, 공론화 방식, 공론화 의제 방향,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 결정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시민공론화에 돌입하게 됐다.
- 그간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사전준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공론화 관련 홈페이지를 구성·운영하고 회의 때마다 언론보도 또는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렸다.
- 이어 본격적인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론화 용역 내역서, 과업지시서 등을 확정했으며, 이를 토대로 시민, 전문가 등 32명의 참여자를 구성해 첫 번째 시민 의견수렴 과정인 ‘시나리오워크숍’을 개최했고, 그 결과물로 3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다.
- 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두 번째 시민 의견수렴 과정인 ‘공론조사’를 시작했으며, 전주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조사를 마치고 시민 대표 숙의토론회 진행을 위한 시민참여단 120명을 선정했다.
- 이양재 위원장은 “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”면서 “이번 공론조사 숙의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옛 대한방직부지의 개발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시나리오워크숍에서 도출된 3가지 시나리오는 △‘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’ △‘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문화 관광 공간’ △‘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’ 등이다.
-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시민의 숲1963추진단(063-281-2712, 2713)을 통해 알 수 있으며, 이날 추진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‘전주시 LIVE’를 통해 시민들에게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.